

고대 불교 석굴 인도 뭍바에서 발견

인도 학계 “기원전 1세기 형성된 것으로 추정”



인도 뭍바이 시(市) 북쪽 외곽에 있는 산제이 간디 국립공원(Sanjay Gandhi National Park)에서 승려들이 문순기후를 피해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굴 7개가 발견됐다.

불교 고승들이 수행 하던 석굴이 인도에서 무더기로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 영자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는 1월 17일(현지시간) “인도 뭍바이 시(市) 북쪽 외곽에 있는 산제이 간디 국립공원(Sanjay Gandhi National Park)에서 승려들이 문순기후를 피해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굴 7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학계는 발견된 석굴들이 인도 석굴사원으로 유명한 ‘칸헤리(Kanheri) 석굴’ 보다 더 이른 시기인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5~6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칸헤리 석굴 사원은 서인도 최대 석굴 불교사원으로 뭍바이 북쪽 간디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다. 2~8세기에 조성된 109개의 석굴에는 불상을 비롯한 조각들이 많이 있으며, 특

히 석가모니 입상과 불탑 등이 뛰어나다. 발견된 7개의 석굴은 칸헤리 석굴사원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인접한 곳에 있다.

이번 발굴은 뭍바이 대학교 고고학센터와 사타예대학 고대인도문화학과에 소속된 연구원 3명이 한 팀을 이뤄 실시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수라이 판디트 사타예대학 고대인도문화학과장은 “새로 발견된 석굴은 인접한 칸헤리 석굴보다 오래되고, 더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칸헤리 석굴은 물을 저장하는 물웅덩이가 발견됐던 것에 비해 이 석굴에선 물웅덩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당시 승려들이 비가 많이 오던 문순기후에서 생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석굴에서는 기원전 1세기에 널리 보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기 도구들도 발견됐으며, 한 곳엔 스투파 위에 난간으로 둘러싼

사진출처=The Times of India

사각형 구조물인 하르미카(harmika)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판디트는 이번 발굴이 체계적 조사에 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단은 발굴된 석굴 대부분이 수원지(水源池) 근처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 조사 작업을 시작하기 전 3개월간 발굴지역 지형과 수(水)자원 등을 조사했다”며 “또한 인도 동부 비하르주(州)에 있는 불교성지인 라지기르(Rajgir)의 석굴에서 생활한 승려에 대해 묘사한 빨리어 원문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인도 최대 ‘칸헤리 석굴’ 근처 승려들, 문순기후 피해 생활 추정
스투파와 ‘하르미카’ 형상 잔존
“유물 보존 중요성 깨닫길”

산제이 간디 국립공원으로부터 조사허가를 받은 조사단은 2명의 보안원과 함께 2015년 2월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승려들이 수원지 주변에 형성된 석굴에서 생활한 것에 착안, 칸헤리 석굴 넘어 있는 폭포를 따라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20여분 도보 후, 울창한 선인장과 관목(灌木)숲을 지나 30분 정도 걷자 폭포에 도달했다.

판디트는 “폭포가 있는 쪽으로 따라가보니 석굴이 5개가 보였다. 특히 부드러운 곡선으로 된 입구와 문기둥, 잘 수 있도록 마련된 돌 받침 등을 볼 때 이 석굴은 인간이 바위를 석굴로 활용한 것이 명백하다”며 “석굴을 발견한 우리는 흥

분을 가라앉히고 추가 석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더 가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탐사 도중 판디트가 가파른 경사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판디트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인 비나야 파라브 마라티매거진 편집장과 아카시 파와르 사타예대 불교학과 교수가 조사를 시작해 나머지 2개 석굴을 찾아냈다”며 “그 중 하나는 현대적 욕실터일이 장식돼 있었으며, 1990년대 봄베이 고등법원이 국립공원 안에 사는 힌두교 은둔 수행자들을 추방할 때까지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디트는 칸헤리 석굴 주제 박사는문을 썼으며, 지금도 뭍바이 국립공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2001~2002년 그는 6개의 석굴을 발견해 국립 인도 고고학 조사단(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ASI)에 보고했다. 이밖에 그는 최근 <돌에 관한 이야기(Stories in Stone)>란 저서를 통해 뭍바이에 있는 다양한 석굴을 소개했다.

인도 학계는 이번 석굴 발견으로 사람들이 유적 보존의 필요성을 깨닫길 기대하고 있다. 뭍바이 대학 석화연구 센터 소장인 무그나 카르닉은 “칸헤리 석굴사원은 방문객들에게 그저 일상의 단조로운 삶 벗어나 머리를 식혀주는 장소로만 여겨진다”면서 “도시 주변에 고고학적 가치를 지니는 매우 중요한 유물과 유적이 많지만 훼손위험에 처해있다. 이번 발굴로 인도인들이 문화보존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5천년 불교유적 ‘뭍타’ 속 사라지나

카템퀸 필름, ‘메스아이낙’ 구하기 전 세계 동참 ‘호소’



메스아이낙(Mes Aynak)은 50만 평 규모에서 수십 개의 진기한 형태의 사리탑과 사찰들, 수 천기에 달하는 불교 유물들이 발견돼 화제다. 사진은 발굴 중인 유물들.

본지에 ‘메스아이낙’ 현황 제보
중광산개발로 파괴 위험 처해
아프간 지역 IS 위협도 도사려
청원운동·다큐멘터리 등 노력

카템퀸 필름(Kartemquin Films)이 파괴 위험에 처한 5000년 불교유적 ‘메스아이낙(Mes Aynak)’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인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아프가니스탄 로가(Logar)에 위치한 불교유적 메스아이낙이 중국 정부의 구리광산 개발로 5000년 역사를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아프간 정부는 2007년 메스아이낙 아래 잠재된 100조 이상 가치 구리광산 채굴권과 함께 유적지 전체를 중국 광산회사(MCC)에 팔았다. <본지 1043호 18면 보도 참조(2015.05.07)>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전문 카템퀸 필름이 본지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 비난여론을 의식한 중국 정부가 2013년 “1년 간 구리광산 채굴작업을 임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기간마저 종료돼 언제 다시 구리 채굴이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카템퀸 필름은 “메스아이낙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진귀한 불상과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단 10%만 발굴된 상태다. 아프간 고고학자들은 탈레반 세력들의 위협과 구리채굴을 위해 메스아이낙을 폭파시키려는 중국 정부 사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카템퀸 필름은 메스아이낙을 구하기 위한 전 세계인의 동참을 간

청했다. 카템퀸 필름은 “메스아이낙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제적 지지운동을 시작한다”며 “후손들에게 메스아이낙을 안전하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다큐멘터리 영화 ‘메스아이낙을 구하라(Saving Mesaynak)’ 상영요청 △1만 명 서명운동 △유네스코 청원운동 △발굴단을 위한 기부 등 동참 방법을 제시했다. 참여방법 아래 참조.

현재 메스아이낙에선 중국 광산 회사가 언제 다시 구리 채굴작업을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유물들을 발굴하려는 고고학자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발굴작업에 필요한 컴퓨터, 카메라, 화학약품 등 기본적 지원도 없이 발굴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메스아이낙을 구하라’를 제작한 브렌트 허프만(Brent Huffman) 감독은 “지뢰 위험은 물론 탈레반에게 납치될 뻔한 적도 있었지만,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전 세계에 메스아이낙 이야기를 알려야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며 “전 세계의 지지와 관심으로 메스아이낙을 구하고, 우리 인류가 물질문명보다 역사적 가치를 우선으로 뒀던 중요한 선례를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메스아이낙은 50만 평 규모로 수십 개의 진기한 형태의 사리탑과 사찰들, 수 천기에 달하는 불교 유물들이 발견돼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브렌트 허프만 감독은 메스아이낙을 구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카템퀸 필름사와 협력해 전 세계 관심을 촉구해 왔다. **박우를 기자**

• 다큐멘터리 상영요청 <http://www.savingmesaynak.com/requestscreening/>
• 1만 명 서명운동 <https://www.change.org/p/president-ashraf-ghani-ahmadzai-prevent-destruction-of-ancient-site-of-mes-aynak-the-environmental-damage>
• 유네스코 청원운동 <http://whc.unesco.org/en/world-heritage-centre/>
• 직접 기부 <http://www.savingmesaynak.com/donate/>

사찰표시 ‘卍’ 나치로 오해... ‘삭제’ VS ‘변경반대’

올림픽 개최 앞두고 일본 지도 바꾸기 고심 중 ‘논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지도 변경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불교사찰을 상징하던 만(卍)자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해할 수 있어 다른 표시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온라인 매체 ‘재팬투데이’와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1월 19일(현지시간) “일본 지리조사연구원(GSI)은 불교사찰을 뜻하는 만(卍)자가 나치의 상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용 지도에서 삭제하고 대신 3중 탑 그림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GSI는 최근 관광 명소인 도쿄 야사쿠사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외국인들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넣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I는 “일본 지도에서 호텔을 뜻하는 ‘H’ 표기를 외국인들은 병원(Hospital)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침대모양으로, 우체국을 뜻하는 ‘U’는 알아보기 못하기 때문에 봉투모양 픽토그램으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불교사찰도 3중탑 그림으로 대체할 것이다. 1천명 이상의 관광객, 대사관 관계자,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

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卍)자가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비롯돼 역사적으로 나치보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마코토 와타나베(후카이도 불교대) 교수는 “우리는 만(卍)자를 나치에서 사용하기 훨씬 전인 수 천 년 전부터 사용했다. 지도에서 만자를 그대로 두는 대신 ‘卍’의 참 뜻을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코나치’라는 트위터(Twitter) 사용자도 “사람들이 근자를 나치 상징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불교의 상징으로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오랫동안 불교사찰을 상징하던 만(卍)자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해할 수 있어 다른 표시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재팬투데이

“교육과 이해 작업 없이 이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지도를 바꾸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비난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세계최대 공안집 신문염송30권 완간

완간!

세계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각 칙마다 명안중사의 눈으로 꿰뚫은 번역에 살찰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의 참 뜻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이다.

바로 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뽀>로 유마경에 걸맞은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MoonZen Press) ☎ 031-534-3373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 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 011-557-2773 fax : 0303-0958-4568
■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元曉 神話 論述誤謬

1,400年만에 밝힌다

Critical Essay 評論

원효기신론소에 依據하여 한역경전오류를 그대로 인용 記述(기술)하여 대부분 한문불교용어를 직역하여 기술하였다. 예컨대 薰習(훈습)을 世間衣服(세간의복) 혹은 香氣(향기)라고 기술하였다.

훈습은 妄心이고 現妄境界이다. 즉 正각실체를 방해하는 작용이다.

如來藏(여래장) 思想(사상)에서 淸淨心(정심)如來藏(정정심여래장)과 識藏(식장)如來藏(여래장) 즉 Alaya 識(알라야)를 혼동하여 기술하고 있다. 元曉가 혼동 혹은 오류를 汎(범)한 부분을 2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評論하였다. 漢字佛敎用語 5,000자를 梵語(범어)와 漢文으로 정리하고 論述하여 評論하였다.

※ 目次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가격 150,000원
■ 저자 직접 구입 : 강상원 010-9134-4505 / 010-5213-6677
■ 교보문고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朝鮮明倫館學術院